

## 한반도에서 성서 새롭게 읽기

김영명



이덕주, 홍성사, 2011

### 반이성적인 한국교회 정서 가운데 만난 반가운 책

참 반가운 책이 나왔다. 나는 이 책의 초판적인 글을 감리교신학대학교 한반도평화통일신학연구소의 무크지 「통일 이후 신학 연구 1」에서 읽고는 저자인 이덕주 교수께 단행본으로 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 책의 매력은 한국 교회의 레드 콤플렉스를 우회하지 않고 정면으로 도전했다는 것이다.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건 출판사 나 저자의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기독교라는 수식어가 있어도 말이다. 얼마 전 깜짝 놀란 적이 있다. 이동원 목사가 레노바레 운동의 리처드 포스터 영향으로 가평 필그림하우스를 통해 관상기도를 시도했었는데, 비판의 소리가 많아 그 프로그램을 중단했다는 것이다. 대형교회 목회자였던 분이 물러설 정도로, 한국교회는 관상기도에 대한 몰이해와 편견이 심했던 것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반이성적인 한국 교회의 행태를 보노라면 슬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분위기와 정서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사회주의 산책』이라는 제목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 반갑다.

이 책은 저자가 '통일 이후 한반도 신학'을 모색한 결과 내놓은 첫 작품이다. 세 번에 걸친 평양 방문, 통일 필요성의 절감, 통일 이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우리 현실 등에 대한 성찰을 담았다. 한국 교회와 신학계가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고 말이다. 저자는 그동안 한국 교회에서 초기 기독교의 원형을 찾는 많은 연구물을 제공하였다. 개론적인 이 책을 시작으로, 앞으로 나올 일제강점기와 해방 전후의 기독교 사회주의 흐름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후 속작업이 벌써부터 기대 된다.

### 성서를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이덕주의 교회사관은 토착교회사관이다. 민족-교회-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삼각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황 특히 다음 세 가지에 중점을

둔다. 첫째, 토착교회 형성과 발전, 둘째, 토착 신앙의 형성과 발전, 셋째, 한국교회의 과거뿐 아니라 현재에 대한 관심이다.<sup>1</sup> 저자는 한국 교회사의 시대를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복음이 들어와 1910년 한일병합이 되기까지 근대화를 이루는데 기여한 시기, (2) 교회가 민족의 독립에 기여한 해방까지의 일제강점기, (3) 해방 이후 고착화된 분단 상황에서 한국 교회의 주요 과제가 된 통일 대비시기. 그는 민족의 분단 상황 속에서 자본주의적 관점에 경도된 한국 교회의 성서 읽기를 반성하자고 말한다. 사회주의를 거부하고 배척할 것이 아니라, 기독교와 사회주의가 서로 인정하고 대화하기 위해 성서를 사회주의적인 관점에서 읽어 보려고 한다. 기독교 사회주의의 탄생 배경과 간단한 역사를 소개하고 구약성서에 나타난 출애굽 공동체의 만나 이야기, 레위기의 안식년과 희년 사상, 예수의 하나님 나라(천국) 비유, 성만찬 공동체, 오순절 성령 공동체 등에 나타난 균등 분배를 실현하려는 사회주의적 이상을 읽어 내서 이야기로 들려준다. 이 책의 미덕 가운데 하나는 장 사이에 사진이 있어서 사진을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는 것이다. 한 가지 아쉬움은, 사진 아래 설명이 배경색과 비슷해서 읽는 데 다소 불편하다는 것이다.

### 희망적인 신학적 해석과 사례들

이 책에 보면 잔잔하게 가슴을 적시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온다. 요즘 신학의 중요한 경향은 이야기와 상상력을 중

요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나 모세의 이야기처럼 기복적인 측면만 보아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알고 보면 성경에는 기독교 사회주의의 원형이 많이 담겨 있다. 출애굽 해방 공동체에 나오는 만나의 경우,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모두 부족함이 없었고, 사람과 자연이 함께 쉬면서 가난한 자와 약자를 위해 이삭을 남겨놓는 안식년, 새로운 자유와 평등을 주는 희년 등.

책을 읽으면서 나에게 새롭게 다가온 것은 성공회 사제의 성찬 이야기다. 사실 한국 교회 예배는 말씀과 성찬의 두 요소 중 한 가지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예전(禮典, Liturgy)운동<sup>2</sup>의 영향으로 성찬을 매주 시행하고 있는 교회도 일부 있으나, 성공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개신교회는 말씀만의 반쪽 예배를 하고 있다. 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담임목사의 말에 다름없지만 말이다. 그래서 이만열 교수는 한국 교회가 자기 신학이 없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 기사를 보면서 나는 디트리히 본회퍼가 미국 체류를 마치고 독일로 돌아가면서 한 말이 떠올랐다. 미국의 교파주의적 기독교에 대해 “종교개혁의 전통이 없는 교회”라고 일침을 놓았던 것이다. 교파를 망라하고 세대주의와 청교도적 칼빈주의와 순복음주의가 기이하게 혼합되어 있는 한국 교회 현실에 저자의 신학적 해석과 사례들이 한 줄기 희망의 새싹이 되었으면 한다.

1. 토착교회사관에 대하여는 이덕주, 『한국 토착교회 형성사 연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0), 24-25을 참조하라.

2. 초대 기독교와 기독교 역사에서 실시된 예배 의식과 예배의 중요한 요소인 말씀과 성만찬을 동시에 행하며, 이것의 예배에서 원래의 위치를 회복하려는 운동. 즉 예배의 성례전적 성격의 재발견, 예배의 초기 형태로의 복귀에 관심을 두는 운동이다.

## 신학적 조화를 이룬 내용들

저자의 입장을 보면 제3의 관점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 기독교 사회주의는 극단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지양한다. 양쪽 모두를 종합하여 ‘연결되면서도 구분되는’ 제3의 이념으로서 중재와 설득력을 갖는다.

나는 예수의 나사렛 선언(눅 4:17-19)에 나타난 변두리(주변부) 신학, 곧 3L(Last, Lost, Least)의 신학을 지향한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Left를 보며 4L의 신학을 지향하기로 했다. 저자의 상상력과 해석에 의하면, 좌파는 악한 것이 아니라 버려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버리다leave의 과거분사). 역사 속에서 좌파는 ‘버려진’ 존재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서 생각하고 행동한 이들을 지칭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으려면 좌파들이 더 많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기독교에 붙어있거나 하수인이 될 때 그 종교는 타락하고 몰락의 길을 갔다. 역사적으로는 고려 시대의 불교가, 조선 시대 유교가 이를 보여주었고, 현재 한국 개신교에 그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대학교 1학년 때 읽었던 『세상의 변혁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비전』(IVP)의 한 대목이 생각났다. ‘누가 데려감을 당하고 누가 버려짐을 당하는가?’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데려감을 당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이해하는 것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열어 주었던 장면 말이다.

저자는 감리교 신학자로서 감리교적(via media) 해석을 하였다. 그러면서도 기독교 세계관에 충실하여 보편적인 기독교의 해석이 되었다. 존 웨슬리의 4가지 신학적 기준은 성서, 전통, 이성, 경험이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 이러

한 것들이 탄탄하고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종합선물 세트 를 맞보게 될 것이다.

## 새로운 성서 읽기가 시작되기를

마지막으로 옥의 티를 하나 지적하자면 단순한 오자로, 121 쪽에 나온 율법 두루마기는 율법 두루마리(신명기 17:18 새 번역)로 고쳐야 한다. 내용적으로는 마르크스에 관한 것으로, 저자 입장이 그렇지는 않으리라 보지만 독자는 오해할 수도 있겠다. 마르크스는 신학에 가장 가까운 벗이다. 현대 신학은 의심의 해석학(hermeneutics of suspicion)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는데, 의심의 대가들인 마르크스, 니체, 프로이트는 중요한 신학의 대화 파트너다.

이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성서 읽기가 시작되기를 바란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열두 장의 성서적 비전인 기독교 사회주의, 곧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통해 해석학적 성찰의 깊이와 넓이를 직접 맛보고 통일 이후를 준비하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약 1:27)”



김영명 한양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공군사관학교와 SK텔레콤에서 근무한 후 감리교신학대학원(M.Div.), 호서대학교에서 한국교회사로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배재대, 전주대, 호서대, 한영신대 신대원, 협성대 신학대학원 등에서 강의했으며, 현재 기독교대한감리회 우두교회 부목사와 삼원서원 원장으로 “김영명의 신학과 세계”(http://thelogyworld.cyworld.com)를 운영하고 있다. 저서로는 『정경옥: 한국 감리교 신학의 개척자』와 엮은 책으로 『정경옥의 요한1서 강해와 신학 산책』, 옮긴 책으로 매튜 폭스의 『새로운 종교개혁』이 있다.